

# 그림책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

- 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

**A Study on Visual Literacy for Picture Books:  
Implications for Librarians Provid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민 경록 (Kyeong-Rok Min)\*

## 목 차

- |                  |                           |
|------------------|---------------------------|
| 1. 서언            | 3.2 예술적 관점                |
| 2. 이론적 배경        | 3.3 문학적 관점                |
| 2.1 용어           | 4. Arnheim의 시각적 사고와 그림 읽기 |
| 2.2 그림책과 시각적 문식성 | 5. 시각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그림 읽기   |
| 3. 그림책의 그림읽기     | 6. 결론                     |
| 3.1 기호학적 관점      |                           |

## 초 록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언어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 그리고 상호간의 보완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전달되는 독특한 장르이다. 글 작가는 문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의 내용으로 작가의 의도를 전개하고 전달하며, 그림 작가는 사물·대상·형상 등에 감정을 이입시킨 그림으로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그림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구조와 작가의 철학, 사상 등을 이미지화하여 변용한 심층적 구조에 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행동주의 심리학자 Arnheim의 시각적 사고이론을 기반으로 그림책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를 돋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사서들의 그림책 서평과 같은 이차자료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BSTRACT

Picture books, as a genre, are characterized by conveyance of ideas through linguistic texts, visual texts, and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s between them. The writer of a picture book develops and delivers his or her ideas with textual contents written in a unique style, while the artist conveys the writer's ideas through pictures where things, objects, and figures are imbued with various emotions. Understanding a picture in a picture book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both the structure shown on the surface and the underlying structure that adapts and visualizes the philosophy and ideas of the writer. In light of the discussion abov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help librarians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visual literacy for picture books, as visual literacy i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readers' advisory services regarding picture books. This method, which is based on behavioral psychologist Rudolf Arnheim's theory of visual thinking, is expected to help librarians write picture book reviews or other secondary materials.

키워드: 시각적 문식성, 그림책, 그림읽기, 그림책 서평, 시각적 사고, 그림책 독서지원서비스

Visual Literacy, Picture Books, Reading of Picture Books, Picture Book Reviews, Visual Think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for Picture Books

\* 청주기적의도서관 관장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rosemkkr@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7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5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23-48, 2017. [<http://dx.doi.org/10.4275/KSLJS.2017.51.2.023>]

## 1. 서 언

어린이들의 독서행태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어린이가 선호하는 도서장르’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① 창작동화·소설(32.8%), ② 전래동화(24.8%), ③ 그림책(16.0%)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미취학의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책’에 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2).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여 그림책은 어린이도서관 혹은 열람실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김종성, 김은옥 2010),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장서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어린이들의 독서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출판협회(PA)의 출판통계연감(PA Statistics Yearbook)에 따르면, 2014년 영국 출판 시장 전체 매출 규모는 43억 파운드(약 7조 6천 억원)로 2013년 대비 2% 하락하였다. 반면에 아동서는 전년대비 9.1% 상승하였고, 이 중 그림책은 8.7% 증가하였다(미래출판전략연구소 2015). 또한, 세계 제1의 출판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그림책은 주목할 만한 분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중국의 주지창 교수는 “유년 문학의 대명사인 도화고사(圖畫故事; 그림 이야기나 그림책)는 21세기 중국 어린이문학에서 매우 크게 성장할 분야”(주지창, 김광식 2012)라며 중국 어린이문학계의 흐름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출판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읽히는 문학과 예술이 접목된 시각 문학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그림책의 독자 범위와 예술 장르에

이르기까지 경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상욱(2011)과 현은자, 김세희(2005)가 정의를 내린 바에 따르면 그림책은 언어기호로 된 글과 시각적 이미지인 그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양식 텍스트로 글이 전달하는 의미뿐 아니라 그림의 기호체계인 시각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시각 언어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문학과 미술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두 개의 기호가 함께 나타내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를 위하여서는 언어 요소와 시각 요소 그리고 결합된 복합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visual literacy)을 필요로 한다.

시각적 문식성은 시각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과 그런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학습된 능력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김지영 2008)으로, 글과 그림의 읽기와 쓰기 그리고 상호간의 보완에 따라 파생되어지는 의미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시각적 문식성의 발달을 위하여서는 그림의 구조와 의미, 그림의 순서, 글과 그림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 관습적인 시각기호 이해(색, 선, 면, 공간, 재질감, 구도, 형태), 서사의 요소(배경, 등장인물, 플롯, 주제), 서사기법(시간조작, 암시), 디자인과 기호학적 의미 분석 등을 배워야(이유나 2015)한다. 그림을 글처럼 읽고 이해하기 위한 그림의 예술적 요소(선, 공간, 모양, 색, 질감, 구도와 조망), 예술적 표현 양식, 예술적 매개체(수채화, 아크릴, 파스텔, 유화, 연필, 판화, 콜라주, 사진 등)에 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그림책을 읽을 때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의 의미까지 읽어야 한다는 기호학적 관점의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이차숙 2013), 그림작가들은 사물이나 현상의 보편적인 중요성을 설명하고 포착하기 위하여 대상을 형태와 색채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의 기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글과 그림간의 상호 관계성을 읽어낼 수 있는 지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읽기와 시각적 사고간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학자로 Arnheim을 들 수 있다. 김정오(2004)는 생각은 이미지를 요구하고, 이미지들은 사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시각예술은 시각적 사고의 본거지라고 하였다. 또한 심미적인 미는 말해지는 내용과 그것을 말하는 방법 간의 동형이질적인 상응성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독자와 소통하는 문학적·예술적·심미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그림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그림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훌륭한 그림책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서관은 독자에게 보다 양질의 독서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표적 기관이며, 사서는 독자에게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를 대신하여 독서자료를 선택해 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제안능력이 필요하므로, 그림책에 관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Arenheim의 시각적 사고이론을 그림읽기와 관련하여 5가지로 정리한 이차숙(2013)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책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제 막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을 위하여 사서들이 그림책의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를 돋기 위한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사서가 그림의 문학적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각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복잡한 이미지를 심미적·예술적으로 해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림책 독자의 독서 전략은 물론 자료 선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서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어린이의 심미감과 상상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언어의 그림책을 독자, 교사, 독서지도사 등에게 제공하고, 그림책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설적 그림책 서평과 같은 이차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림책 독자는 물론 사서 등으로 하여금 그림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참고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중요한 독서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현장의 사서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차자료 작성의 적용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용어

시각적 문식성(visual literacy)이란 이미지나 영상을 뜻하는 ‘시각(visual)’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식성(literacy)’을 결합시켜 놓은 용어이다.

‘리터러시(literacy)’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읽기 분야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文解力)’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범위가 문자 이상의 영상, 이미지, 기호 등으로 확대되면서, 2000년대 이후 언어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식성(文識性)’이라는 용어가 ‘문해력’을 대체하고 있는 양상이다(송경진, 차미경 2014).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전통적 의미에서 정보의 소통을 매개로 하는 매체 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문식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노명완, 이차숙 2002)한 것으로, 글자와 관계된 기능적인 의미 이상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영역을 확장하여 확대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시각적 문식성은 시각 이미지를 읽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성된 것으로, 다양한 시각적 문화양식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능력은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시각적으로 읽기, 시각적으로 쓰기를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시각적으로 의사소통하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각문화 환경에서 시각적 문식성은 모든 시각 이미지를 분석적·비판적으로 보기 위한 해석 능력으로 확대하여 정의할 수 있다(박소라, 김정선 2011). 이를 독서 분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린이가 페이지의 단어들을 해독할 수 있기 한참 전에 시각적 문식성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 책들은 자연스러운 독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윤정우 2014).

이와 같이 이미지를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은 언어 요소와 시각 요소가 섞여 있는 다층구조 텍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림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개념화하여 이를 문학적·심미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매체와 표현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시각적 문식성은 소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2.2 그림책과 시각적 문식성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글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력뿐 아니라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글에 다양한 문법이 있듯이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사물이나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회화적으로 표출하는 표현주의 기법의 그림책이 있다. 이러한 그림책의 이해를 위하여서는 글로 표현된 내용은 물론 시각적으로 표현된 회화적인 상징기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민경록 2015). 즉 글을 읽고 쓰는 것 뿐 아니라 시각적인 자료를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창의력을 중요한 산업적인 기반으로 삼는 영국에서는 시각적 문식성 향상을 위하여 그림책 읽기에서 글의 의미뿐 아니라 그림의 각도와 클로즈업, 색깔과 배경화면, 주인공의 크기와 배치 등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질문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림책 그 자체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작가와 출판사가 의도한 판형을 비롯하여 종이의 두께와 질감 및 색감 등을 어린이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서남희 2012).

어린이들은 글보다는 그림과 색깔, 형태에 끌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디자인을 비롯한 시각 자료를 살펴보고, 감상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므로, 시각 텍스트 분석의 훈련을 통하여 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서남희 2012). 따라서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은 시각 텍스트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문학적·심미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시각 문식성 향상의 훌륭한 매체가 될 것이다.

그림책은 연속되는 그림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장과 결합하거나 문장 없이 정보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다른 형식의 시각예술이나 언어예술과도 차별되며 그림책의 그림이나 문장은 다른 상황 속에 존재하는 그림이나 문장과 다르며, 소통방식 역시 다르다(김상욱 2011). 이는 그림책 구성 텍스트인 글과 그림의 개별적 소통매체로서의 기능보다 상호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창출되는 예술 형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책에서의 그림은 단어를 확장하고 명료화하며 보완하거나 혹은 단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며(현은자, 김세희 2005), 글과 그림의 사이에서 비유와 은유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글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그림의 문법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그림의 서사적인 측면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Nodelman과 Shulevitz의 정의에 따르면 그림책의 그림을 ‘본다’는 것은, 김춘일(1996)의 시각적 사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상의 요소들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구조적 패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사물, 현상)의 시각적

표현은 어떤 대상(사물, 현상)의 외양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묘사되는 것이 아닌 독자의 경험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비판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되어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림읽기는 이야기의 수용자인 독자의 해석과정이 매우 중요(이차숙 2013)하며, 때로는 익숙한 이야기에서 새로운 해석을 끌어내기도 하고, 이야기의 의미를 명료화·구체화시키기도 한다(이유나 2015). 특히 구전 문학인 옛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던 소재, 배경, 공간 등이 시각적으로 묘사됨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결론을 유도해 내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 3. 그림책의 그림읽기

문학적 요소인 글과 예술적 요소인 그림의 복합적 구성 체계인 그림책은 글과 그림 그리고 상호보완의 관계에 따른 다양한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다.

Nodelman은 이와 같은 그림책의 특성을 글과 그림을 관계있게 배치하면 둘의 의미는 반드시 변화하며 따라서 둘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그림책을 다른 시각·언어 예술과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로 글과 그림간의 독특한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서남희 2012). 이는 글이 기술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와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거나 대치되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개될 경우 상징성이 뛰어난

풍부한 서사적 작품의 그림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조화로운 배치에 따라서 서사가 전개되는 문예적 작품으로, 심미적·서사적·언어적 측면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그림의 상징적 의미, 그림의 표현적 속성과 그에 따른 해석, 그림의 물리적 특성, 그림의 문학적 반응 등을 중심으로 그림의 서사적 이해를 이끌어 내어 독자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그림책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심미적·회화적·서사적 측면의 의미와 해석을 위한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것으로, 글과 그림의 결합의 방식과 상호 관계성을 기호학적 및 문학적·예술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3.1 기호학적 관점

글과 그림은 사물이나 대상을 대신하는 보편적인 기호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매개체의 등장에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호이다. 그림책의 기호학적 관점은 글과 그림이라는 기호를 통하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현은자 외 2004)하는 것으로, 글과 그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무한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Kress와 Leeuwen은 그림책에 세밀한 기호학적인 분석을 적용하여 시각 디자인의 문법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그림책을 펼쳤을 때 대체적으로 왼쪽에는 이미 알려진 것을, 오른쪽에는 새로운 정보를 담는다(서남희 2012)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일(1996)은 미술 작품에서는

형태, 방향, 위치 같은 모든 표현 요소들은 균형을 이를 수 있게끔 배치되어야 하며, 불균형한 작품은 우연적, 가변적으로 보여 허약해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상징적인 불비례 관계는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요인들에 의하여 안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흥미를 일으키며, 균형의 형태 중에서 시각 패턴의 아랫부분이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랫부분이 무거운 것을 안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좌우 균형의 형태에 있어서는 그림을 거울에 투영시킬 경우, 외양도 바뀌고 의미도 상실된다는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는 그림 속의 대상은 어떤 것이 되었던 오른쪽의 것이 더 무겁게 보이므로, 그림책 독자로 하여금 기존에 익숙해 있던 관점이나 사고가 아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좌우로 나누어 페이지의 오른편에서 표현하게 된다. Birmingham의 그림책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이상희 2003)에서 왼쪽 페이지는 현실의 공간으로 오른쪽 페이지는 상상의 공간으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상상의 공간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 좌우의 공간 분할을 통하여 현실과 상상의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글 텍스트만을 읽을 경우에는 내용에 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 속 주인공인 '셜리'가 희망하는 상상의 공간은 글 텍스트를 통하여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림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글과 그림의 개별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두 기호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그림책을 우선적으로 훑어보기를 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책 읽기의 방법이 될 것이다.



〈왼쪽 면: 현실 공간〉

〈오른쪽 면: 상상의 공간〉

〈그림 1〉 'John Burningham' 「설리야, 물가에 가지 마」(이상희 2003)

그림책의 도상 기호인 그림은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거나 표상하고, 관습 기호인 글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순서에 따라 이야기 한다. 선형적인 관습 기호와 비선형적인 도상 기호는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방식은 무한하다(서정숙 외 2011). 이는 독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독서는 읽는 사람, 시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곧 독서를 통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독서의 목적으로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책은 독자로 하여금 글과 그림의 조화와 아이러니를 통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다층적 구조의 독서 매체이기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그림책의 특성을 고려한 책 읽기의 방법으로 해석학적 읽기를 들 수 있다. 해석학적 분석이란 책을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 세세한 사항까지 읽어 더 잘 이해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책 전체를 읽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학의 주요 전제는 전체와 세부간에 교차하는 하나의 예술로부터 의미를 추출(조희숙 외 2009)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

책은 글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림에서 글로, 연쇄적으로 이해의 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해석학적 순환의 무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글과 그림에는 독자나 감상자가 자신의 사전 지식과 경험, 기대에 따라 채워 넣을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에서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글 텍스트는 글 텍스트대로, 그림 텍스트는 그림 텍스트대로 각각에 빈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전체 또는 부분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기도 한다. 또는 독자나 감상자가 채우게 빈자리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글과 그림은 각각의 방식으로 서로를 환기시킬 수도 있고, 서로 독립적일 수도 있다(서정숙 외 2011). 이처럼 그림책을 구성하고 있는 글과 그림간의 배치, 균형,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림책의 리듬이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 등과 만나게 되면서 무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묘사된 그림을 분석하기보다는 전체 읽기를 통하여 글과 그림간의 관계에 의한 보편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의 흐름

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독서의 방법일 것이다.

그림책에서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코노텍스트(Iconotext)’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글과 그림이 각각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과 그림 사이의 대화가 필수적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것이다(현은자 외 2004). 이와 같은 견해는 그림이 글을 보조하는 수단이나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의한 무한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글과 그림이 개별 기호 체계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두 기호체계가 보완과 대치 등의 상호 복합적 관계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제3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글 읽기에 익숙한 성인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읽기의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글도 그림의 일부 혹은 그림을 글의 일부로 보면서 책 읽기에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 3.2 예술적 관점

그림책은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 그림책에 와서는

주로 ‘작가적’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여 예술의 독립적인 장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책이 문학 장르가 아니라 글과 그림 언어의 결합으로 빚어진 형식이라는 견해가 받아들여지면서 영미권에서는 일찍부터 그림책을 예술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현은자 외 2007). 그림책 작가 중에는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녹여 화가의 특성과 화풍을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그림책 작가 ‘Anthony Browne’의 경우는 초현실주의화가 ‘René Magritte’<sup>1)</sup>의 회화적 성향 중의 하나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sup>2)</sup> 기법을 작품에 도입하여 독자들에게 불안·초조·반항·판타지 등의 상황을 전달하기도 한다(민경록 2015). 이러한 작가주의적인 그림책은 기존의 그림책과는 다른 독창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서사의 또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차숙(2013)은 유·아동기의 시지각 활동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 시기에 시지각 능력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어나며 시각적 사고가 신장된다고 하였다. 또한 진선미(2011)와 한유경(2013)은 시지각 능력은 4~7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하고, 시각적 문식성과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아

- 1)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 :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나란히 두거나 크기를 왜곡시키고 논리를 뒤집어 이미지의 반란을 일으켰다. 장난기가 가득하고 기발한 상상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관습적인 사고의 일탈을 유도하고 있다.
- 2) 데페이즈망(dépaysement) : 전치(轉置) 또는 전위의 의미이다. 본래는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데페이즈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시인 로트레아몽(Lautréamont)의 유명한 시구절인 ‘재봉틀과 박쥐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듯이 아름다운’에서 잘 나타난다. 즉 낯익은 물체라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 내어져 이처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이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경이와 신비에 가득 차고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했는데, 초현실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그림은 보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의 시각적 사고는 그림책의 그림읽기 활동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유나 2015). 그림책은 유아가 처음 접하는 예술작품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매체로, 다양한 기법과 소재로 표현된 그림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접하며 미술적 시각 인식능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술적으로 뛰어난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미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림책에서 사용된 기법과 활용된 매체는 수성물감, 크레파스, 유화물감, 파스텔, 연필, 목탄 등의 재료와 그림, 판화, 사진, 콜라주 등 실로 다양하다. 따라서 유아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미술 작품의 표현 기법을 이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러한 기법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현은자 외 2007).

특히 그림책은 대상이나 형상의 색, 배치, 각도 그리고 표현들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독서지도(교육)에 관여하는 학부모 · 교사 · 사서 등은 활자화된 글 정보에는 익숙하나 그림 정보에는 낯설어 한다. 그림책의 그림을 시각언어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글을 시각화하는 요인이 되는 그림의 예술적 요소, 예술적 표현양식, 예술적 매개체 등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림책을 읽기 위한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술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색 · 선 · 모양 · 공간 · 질감 · 구도 · 원근법 · 배열 등의 요소들은 글의 내용에 맞도록 작가가 의도한 바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회화적 기법의 ‘예술적 표현양식’은 그림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의 양식은 이야기의 내용과 특성 및 분위기와 연계될 때 그림이 글을 대변하기도 하고 글을 더욱 보완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의 표현양식을 구체화시키는 ‘예술적 매개체’는 하나의 작품에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입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림을 구성하는 예술적인 요소와 매개체 그리고 표현양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글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신혜선 2002). 이렇듯 그림책은 글로 표현되는 내용의 소개와 그림의 다양한 재료, 기법 그리고 표현방법 등으로 표현되는 전체적인 사항과 분위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 3.3 문학적 관점

현대 문학은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여 문학을 작가에 의하여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이 첨가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되는 미완의 텍스트로(현은자 외 2004). 독자들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과 사회적 ·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그려가며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둘의 결합으로 탄생된 텍스트의 복합 구성체인 그림책은 각각의 기호 체계 간 비어 있는 공간을 독자의 상상과 추론에 맡겨 최대한의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책이 독자의 상상력을 끌어내어 문학적 성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어떤 그림책에는 직유와 의인화, 은유 등의

비유어(figurative language)가 사용되지만, 이런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림책도 있다. 비유어는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의 전환에 기반한다(서정숙 외 2011). 즉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이중표현을 그림을 보고 연상하고 언어화하기 위해서는 비유와 같은 그림의 문법과 같은 코드가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대체적으로 6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략화된 글과 몇 장의 그림으로 서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그림이 배경, 시점, 시간과 공간의 흐름 그리고 이야기의 문맥과 관련된 담론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위해 그림책에서 현대문학의 성격을 반영한 장치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들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sup>3)</sup>이라는 개념은 둘 이상의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지칭한다. 아아이러니, 패러디 그리고 문학적 암시와 비문학적 암시, 직접 인용 또는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의 잘 알려진 패턴을 따는 식의 간접적 참조 등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에서 상호텍스트성은 글과 그림의 두 차원에서 모두 존재한다. 상호텍스트성은 대응하기도 하고 대위될 수도 있다. 대위된다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이 글 또는 그림 텍스트 한쪽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서정숙 외 2011). 어린이그림책은 특히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글로 표현하지 않고 그림형태나 배열 및 그림을 표현한 플레이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다른 장치를

통하여 이야기와 이야기간의 이동, 시공간의 자유로운 이동, 작품간의 이동, 작품을 바라보는 시점의 이동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연계되는 다른 작품으로의 독서를 권장하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 4. Arnheim의 시각적 사고와 그림 읽기

Arnheim은 형태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시각적 사고 이론을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이유나 2015), 형태주의 심리학은 의식의 활동성과 지각의 전체성을 강조하여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을 원자적인 부분들로 분석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산술적 총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며 부분들은 이 전체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네이버 백과사전). 이는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지각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보편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춘일(1996)의 시각적 사고 이론을 정리해 보면 첫째, 감각, 지각 및 사고는 능동적 탐색, 선택, 추상, 관계 추출 등의 공통적인 심적 조작(mental operation)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둘째, 지각은 감각자료와 그 자료를 제공한 대상에 관한 기억을 따져 대상에 관한 가설을 만들고 이를 검증하는 것으

3) 상호텍스트성은 글과 그림간 대위로 표현되거나 하이포텍스트(hypertext; 하이퍼텍스트가 기반하거나 참조하는 선행 텍스트, 여기서는 참조 텍스트를 의미)를 기반으로 한 패러디, 문화에 기반한 성, 권력, 캐릭터 등의 뒤집기, 유명한 예술 작품의 묘사, 그림 속 글씨(아이코노텍스트) 등이다.

로 지능적·논리적이다. 셋째, 지각의 바탕인 감각은 다양하며, 사고의 바탕이 되는 지각은 보편성과 추상성을 띤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추상은 정적 개념이 아닌 역동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섯째, 언어적·수리적 사고는 단계적·논리적인 사고에는 유용하지만 은유적·전체 지향적, 그리고 변형 생성적인 심적 조작을 위하여서는 모든 독창적 사고에 필수적인 시심상(視心像)이 우선되어야 한다(김정오 2004)는 것이다. 즉 모든 사고는 지각적(知覺的) 성질을 띠고 있으며, 특히 시지각적 기초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인식을 의미(이차숙 2013)하는 것이다.

그림책의 그림을 읽기 위한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Arnheim의 미술을 통한 시각적 사고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예술 작품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와 심층구조(deep structure)의 두 차원으로, 전자(前者)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측면이고, 후자(後者)는 예술가가 의도한 관념, 해석, 철학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하여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표면구조의 단서들을 이용하여 추론하고, 예술가의 심층구조가 표면구조로 변화된 변형에 대한 가설을 통하여, 예술가가 의도한 심층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단지 그 표면구조만을 바탕으로 아름답다든지 또는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작가가 표면구조의 배후에 제시한 심층 구조의 질서, 균형, 의미를 파악한 후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는 그 차원을 전혀 달리한다(김정오 2004)는 것이다. 따라서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

책을 읽을 때는 그림작가의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 상징화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그림을 해석하고 그 심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독자들에게 익숙한 글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한 의미를 읽고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글을 처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Arnheim의 시각적 사고이론을 토대로, 이차숙(2013)은 그림 읽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그림책의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 이미지의 심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 향상의 방법과 연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인간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세부 특징이 아닌 대상의 전체 구조를 먼저 지각하는 것으로, 이는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탐색, 선택, 단순화, 추상, 분석과 종합, 본질의 이해, 비교의 사고활동이 함께 일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대상에 내재된 의미를 먼저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림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글과 그림의 두 개의 기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책은 글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하나의 기호체계를 먼저 읽은 후에 다른 기호체계를 읽으면서 상호간 들려주는 이야기의 폭을 확장시키며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그림책의 그림은 화가의 순수 시각적 미술 작품과 달리 페이지간의 그림의 연결에 의한 서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림책의 특성으로 그림책 읽기에서는 반복적인 독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영·유아기의 독서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부

모, 교사, 사서 등 보육자가 글 텍스트를 들려주고 동시에 어린이는 그림을 읽는 것이다. 이는 언어 체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시각 이미지로 읽어 들이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그림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글을 읽어주는 보육자는 어린이가 그림을 읽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 사실 그림책의 글은 대체적으로 글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자칫 글 텍스트만을 읽게 되어 그림을 충분하게 읽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림의 상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읽는 것 보다 전체적인 훑어보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림 문법에 숨겨진 장치나 코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를 읽어내게 됨에 따라 앞에 읽었던 내용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책 「달라질 거야」(허은미 2003)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의 장면에서 갑작스럽게 주전자와 고양이가 결합된 그림이 등장한다. 그러나 몇 장이 지나서 다시 이러한 유형의 그림을 계속 만나게 된다. 이는 회화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그림 작가가 표현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그림책 작가 ‘Anthony Browne’은 작품 속에서 불안, 초조, 방황 등의 불안한 심리를 묘사할 경우 이러한 화법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Anthony Browne' 「달라질 거야」  
(허은미 2003)

또 다른 예로는 작품간의 상호텍스트성을 들 수 있다. David Wiesner의 「The three pigs」(이옥용 2002)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로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글과 그림이 상반된 내용으로 전개되거나 글과 달리 그림이 갑자기 다른 전래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채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사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글과 그림이 대치되는 대위법<sup>4)</sup>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진행할 경우 그림을 보지 않고 글만 읽는다든가, 글은 읽지 않고 그림만을 읽게 되면 작가의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그림을 분석하기보다 전체적인 구성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세부적인 그림 분석을 하는 것이 그림의 전체적인 경향을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4) 대위법(counterpoint). 주로 음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쪽이 서로에게, 또 청중에게 '말'하는식의 멜로디를 합친 기법을 말한다. 그림책에서 이 용어는 보통, 글과 그림 간의 역동성을 뜻한다(Salisbury, M. and Styles, M. 2012. Children's picturebooks. 서남희 옮김. 2012. 『그림책의 모든 것』. 서울: 시공사. 189).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작품에 관한 이해와 상상을 높여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각은 지각 대상의 특성과 지각 기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그림책 작가의 문학적·예술적 의도뿐만 아니라 그림을 읽는 독자의 경험적, 동기적, 개인적, 사회적인 요인이 함께 결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독자 개인의 경험에 의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문학의 목적을 작품을 읽고 획일적인 평가와 해석에 두지 않고, 독자의 경험, 시대,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평가되는 것에 둔다면 작가들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문장이든 그림이든 상징성을 띠는 표현을 통하여 독자들과의 만남을 기대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그림도 하나의 기호이므로 글과 마찬가지로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작가와 독자가 상호간 소통하기 위하여서는 그림 코드를 공유해야 하며, 그림코드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므로 학습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통한 수많은 기호와 그림 코드, 시각예술에 노출되는 것은 그림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이유나 2015). 이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줄 때는 교사와 어린이, 어린이와 텍스트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어린이들의 느낌과 감정을 자극하여 그림책에 녹아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상상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모든 사고는 지각적 기억을 기초로 발전되므로 어린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는 시지각적 기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지각적 사고는 언어·수리적 사고와 달리 문학적·심미적 해석에 중요한 은유적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그림책을 읽고 그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독자의 인식과 이해를 명료하게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김정오(2004)가 그림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표면구조의 단서를 추론하여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과 철학 등의 심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바와 같이 각각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 관한 세부적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사, 독서지도사 등은 전체적인 책 읽기를 한 후에는 세부적으로 그림을 살펴보고 각 장면을 어린이의 경험과 연결시켜 가면서 설명하여 어린이들의 기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림의 선, 색, 면 등의 예술적 요소와 이를 표현한 전체적인 화풍 그리고 질감의 표현 등에 관한 느낌 등을 공유하면서 그림의 코드를 읽어냄으로써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의 역할이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각은 형상의 구조적 패턴을 파악하면서 이미지를 읽게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읽는 독자는 그림 속 대상들의 구조적 패턴, 위치 등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책은 물리적으로는 페이지의 제한과 기술적으로는 정지된 그림으로 동적인 상황을 묘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 선형적·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림의 구성단위들의 구조, 패턴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글과 그림 그리고 물리적(형태적) 특징의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독자는 시점, 공간, 장르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풍부한 문학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그림요소와 그림문법에 관한 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그림 전체와 그림 책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배치에 있어서도 왼쪽에 배치하느냐 오른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현실과 판타지의 공간, 그리고 이미 익숙하고 알려진 사실의 내용은 왼쪽 면에 배치하는 반면 새롭게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림은 오른쪽 면에 배치하는 등 페이지를 분할하여 현실과 상상의 공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 혹은 과거 등으로 분리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

림을 표현한 사각 프레임의 유무를 통하여서도 내면으로부터의 성찰에 의한 성장을 표현하는 등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묘사하기도 한다. 유지연(2014)의 「엄마의 초상화」에서는 동일 인물이지만 서로 다른 엄마 ‘미영’씨의 모습이 양쪽 면에 펼쳐진다. 오른쪽 면에 그려진 자유롭고 재미있는 엄마는 여전히 사각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미영’씨는 여행 가방을 들고 틀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다. 이는 곧 등장인물의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황이나 성격 등을 시각적인 설명적 요소로 표현하거나 색의 대비를 통하여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독자들은 그림의 문법을 통한 문학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림을 표현한 매체에 관한 것으로 ‘Davide Cali’의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정혜경 2014)에서는 ‘싸움’에 관한 주제가 자칫 무



〈그림 3〉 '유지연' 「엄마의 초상화」

겹거나 어둡게 표현될 수 있다는 기준의 생각에서 벗어나 ‘펜’으로 가볍고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내용을 무겁지 않고 경쾌하면서도 능청맞게 접근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민경록 2017). 이처럼 그림책을 다양하게 읽어보고, 세부적인 그림 요소들을 살피고, 글과 그림의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한 후 거기에 독자 나름의 해석을 포함시켜 표현할 수 있다. 독자들이 그림을 읽을 때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시각적 사고의 한 유형인 것이다.

다섯째, ‘글은 대상을 해석하여 나타내는 기호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기호가 다시 그림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 그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림은 대상을 해석하여 표상하는 기호가 되고, 이 기호는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 글로 표현되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림책은 글 기호가 그림기호로, 그림기호가 글 기호로 변화하여 새로운 해석을 창출하면서 ‘상호 중재(transmediation)’한다(현은자 외 2004)는 것이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무한의 해석을 할 수 있고, 해석된 내용을 또 다른 시각적 이미지로 상징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을 반영한다. 이처럼 그림의 심층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작가의 의도가 이미지로 어떻게 변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다수의 작가들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효과적인 독서법이 될 것이다. 이는 언어적인 표현을 시각적 이미지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시각적 이미지에 내포된 작가의 사상, 철학, 의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심층구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그림의 균형, 배치, 각도, 색채 등이 의미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그림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에 각 장면에서 그림의 표면구조의 배열, 각도, 대비 등의 구조적 특징과 예술적 요소의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독자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정오(2004)는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체계는 인습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 비언어적 심상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그림책은 언어 체계와 비언어적인 시각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언어를 통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각 이미지로 상징화된 작가의 의도를 예술적·심미적·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풍부한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시각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그림 읽기

그림책은 글과 그림, 상호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풍부한 서사를 전달한다. 특히 그림 서사는 작가의 생각과 철학 등을 그림의 구조적 특징, 예술적 요소 등과 같은 시각적 변용을 통하여 상

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에 사서는 그림책에 익숙하지 않거나 흥미는 있으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그림책 읽기에 곤란을 겪거나 그림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에게 그림의 상징적 의미와 작가가 의도하는 내용이 이미지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심미적 성향 등에 관한 해설적인 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들에게 시각적 문식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읽기 방법이나 독후활동 등을 제시함으로써 훌륭한 독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차숙(2013)의 시각적 이론을 기반으로 사서들이 그림책 독자에게 적극적인 독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를 돋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글과 그림의 유기적 관계에 따른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림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서는 글 텍스트나 그림 텍스트 중 우선 읽기를 한 후에 글과 그림간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읽기를 진행하는 해석학적 방법의 책 읽기를 권한다. 전체적인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한 후에 각각의 대상에 관한 모양, 색, 선, 배경, 매체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하고 다시 전체적인 구성 부분을 확인해 가며 읽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글과 그림이 상호간의 빈 공간을 채워가며 스토리를 만들어가므로 반복적인 읽기를 통하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개의 코드로 구성되어진 그림책의 경우 특히 시·공간의 흐름과 이동, 서술적 표현을 선형적인 구조의 언어(문자)가 아닌 비선형 기

호 체계인 그림으로 시각적 질서를 통하여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David Wiesner의 그림책 「The three pigs」(이옥용 2002)의 경우 시간·공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작품간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작품에서 작품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장면의 그림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다수의 작품 간의 연결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서는 독자에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수의 작품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토론 등의 독후활동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글 없이 그림만으로 구성된 그림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훑어 읽기가 중요하다. 이는 마치 그림이 전혀 없이 글 텍스트만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책을 보고 어린이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그림만으로 구성된 그림책을 통하여 성인들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의 경우 글만 빼곡하게 적혀있는 책은 아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글 없이 그림만으로 구성된 그림책을 보는 성인들도 유사한 경험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장면에 묘사된 그림을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는 훑어 읽기를 통하여 그림 구성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스토리의 전개를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독서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류의 책을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한 문맥상의 유의미를 찾아냄으로써 단어의 의미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림책의 그림을 읽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림책

을 읽을 때 처음부터 그림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림 코드와 문학적 코드의 결합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보완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전달되는 장르로, 글 작가는 문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의 내용으로 작가의 의도를 전개하고 전달하며, 그림 작가는 사물·대상·형상 등에 감정을 이입시킨 그림으로 작가의 의도를 전개하고 전달한다. 이에 그림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철학 등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용하는 과정에서 공통적 혹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림문법을 토대로 작가가 비유적·은유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에 관한 문학적·심미적 해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서는 이를 위하여 그림의 예술적 요소, 예술적 표현 양식, 예술적 매개체 등을 통하여 그림 작가들이 사용하는 그림의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문식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그림책 독자의 경계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내용에 있어서는 주제, 소재, 장르 등이 다양하고 표현 매체 및 기법 등 예술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판계의 흐름과 높아진 독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독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서들의 그림책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서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문법의 시각적 분석은 그림 전체를 이해하고 그림책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동일 작가의 다수의 작품 읽기를 권한다. 동일한 스토리를 다룬 다수의 그림

작가들이 표현한 작품들을 비교·분석하면서 글 텍스트뿐 아니라 그림의 시각적 텍스트가 스토리의 전개와 해석을 변경하거나 재해석 혹은 강화시켜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는지? 그림의 묘사에서 생략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장면인지? 다수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진 장면이 있는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그려진 장면이 있다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림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수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인물의 유형, 이미지 등의 순환적 요소들을 표현하는 장치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나 기법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작품들을 선정·분석하여 그림의 요소와 구조상의 의미적인 연결을 위하여 작가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회화적 기법 등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는 글 텍스트로 구성된 문학작품에서 언어의 이중적 표현으로 작가의 의도를 강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작가가 시각적 이미지를 화가들의 화법을 통하여 그 안에 은유와 비유를 창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림책은 글의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글과 그림의 배치, 균형 등의 표현 요소와 책의 형태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의미를 전달하는 독특한 문예 장르인 것이다. 때문에 글·그림·형태 등 총체적인 사항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림책 작가가 표현한 그림의 표면 구조에 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확장된 심층적 구조의 작가의 이념, 주제, 철학 등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들은 독자에게 이러한 그림책 읽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래동화와 같이 독자들에게 친숙한 스토리를 그림책으로 발간한 다수의 작가들의 작품을 목록화하여 제공하거나 동일한 작가의 다수의 작품들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비교서지학적 측면의 다양한 책 읽기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 목록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Ruth Heller는 옛 이야기 '신데렐라' 와 유사한 전개구조를 지닌 세계의 이야기들을 한국, 이집트, 페르시안, 아일랜드 등 각 문화권에 맞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그림책으로 출간하였다. 세계의 여러 언어로 표현된 글 텍스트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시각 텍스트인 그림을 통하여 유사한 상황을 전개하면서도 이를 표현하는 이미지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꿈 등장인물, 배경, 소품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그림책을 읽는 독자들이 난감해 하는 시각적 이미지의 상징성을 해석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훌륭한 독서지원서비스가 될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던적 형식의 문학적 코드의 작품을 통하여 문학적 반응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시각 텍스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Margaret Meek는 포스트모던 그림책(대표적인 예로, Chris van Allsburg, Sara Fanelli, Emily Gravett, Peter Sis, Lane Smith, Colin Thompson, David Wiesner)이 여러 가지 방법의 읽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림책의 정적인 특성에 재미있는 의문을 던지고, 다른 텍스트 형식에 길들여진 독자를 어떻게 유연하게 바꾸어 주는지를 이야기한다(서남희 2012)고 하였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기존의 총체화되고 획일화된 관점에 의하여 고정된 사고를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과 접

근을 제시한다. 어린이문학에 반영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상호텍스트성'을 들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실현 과정에서 작가나 독자가 사전에 경험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텍스트와의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문학으로 재창조되기도 한다. 이 때 텍스트간의 연결은 문학 장르와 텍스트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뿐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작품 심지어는 비문학적인 영역까지 맥락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David Wiesner의 「The three pigs」(이옥용 2002)에서는 원작과 달리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용 이야기', 그림 부분에서는 작가의 작품 '자유 낙하'를 연계함으로써 그림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작품을 찾아내는 재미를 전해주고 있다. 또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치를 통하여 직면한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들로부터 탈출하는 반전의 묘미를 주기도 한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모험의 공간의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민경록 2008). 장르와 작품 간의 경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치는 독자로 하여금 무한의 상상을 가능하게 하며, 다수의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작품 속의 작품, 소재 등에 관한 흥미를 유도하여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연계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는 독자의 적극적이고 무한한 독서 효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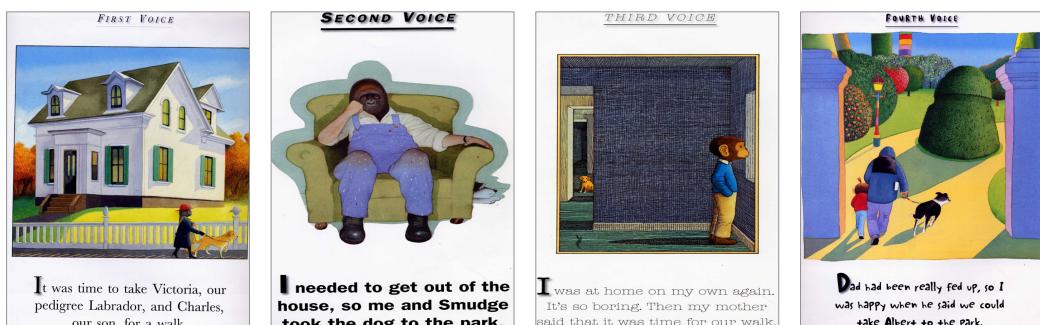
넷째, 그림책의 형태적·물리적 특징 등을 책의 내용과 연계하여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서들은 독자서비스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서지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서지정보 중에는 형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림책은 다른 도서와 달리 형태적 측면에서 비정형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형태 또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오(2004)는 사고의 기초는 지각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지각은 시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작용한다. 그림책은 내용적 측면 외에도 판형과 장정 및 면지 등의 형태적 측면까지도 줄거리와 연결되어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기도 하므로, 완전한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서는 물리적인 측면까지도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통하여 상황과 심리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때로는 접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활자체 등에 상징성이 내포되기도 한다. 「Voices in the park」(Browne 1998)에는 두 가정의 부녀(父女)와 모자(母子) 등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각 캐릭터의 성격을 활자체를 다르게 표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글자가 언어적 기능뿐 아니라 시각 이미지적 기능의 요소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각 캐릭터를 소개하는 활자체를 통하여 성격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에서는 때로는 글 텍스트를 읽는 기능만으

로 접근하여서는 안 되고 ‘본다’는 시각적 지각이 작용하는 것이다.

판형을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연계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오츠카 유우조의 「수호의 하얀말」(이영준 2001)은 만주의 광활한 벌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가는 이러한 공간적·환경적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편방(扁方)의 판형으로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광활한 느낌을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방(長方)의 판형은 높이나 성장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려지는 세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작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Annette Huber의 「99센티미터 한스」(조국현 2008)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깨까지만 그리고 그 위로는 생략하였다. 그림을 성인등장인물의 어깨까지만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세상을 글이 아닌 이미지로 표현(민경록 2015)한 것이다.

이처럼 그림책에서는 도서의 판형은 내용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태적·물리적 특징에 관한 읽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4〉 'Anthony Browne' 「Voices in the park」

## 6. 결 론

그림책은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 중의 하나로,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과 예술의 통합된 매체이다. 일반적으로 글로 구성된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에 있어서는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대상과 형상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순차적인 그림을 해독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정오(2004)는 시지각이 곧 사고(思考)라고 주장하면서 그림은 표면구조와 심층구조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 그대로를 보는 것이고, 후자는 그림 작가의 관념, 해석, 철학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서들은 그림 작가의 본래의 의도를 문학적·회화적·심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자들의 그림책 선정을 지원하거나 독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서가 그림 작가의 본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구조의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림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들은 글의 내용뿐만이 아닌 그림에 관한 해석은 물론 종이와 색감 및 판형 등과 같은 물리적 사항을 통하여서도 작가의 의도가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그림책에 관한 해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독서자료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그림

책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를 돋기 위한 방안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독자들에게 풍부한 해석의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그림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글 텍스트나 그림 텍스트 중 우선 읽기를 한 후에 글과 그림간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읽기를 진행하는 해석학적 방법의 책 읽기를 권한다. 전체적인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한 후에 각각의 대상에 관한 모양, 색, 선, 배경, 매체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하고 다시 전체적인 구성 부분을 확인해 가며 읽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의 상호간의 빈 공간을 채워가며 스토리를 만들어가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글과 그림의 유기적 관계에 따른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림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관하여 설명한다.

둘째, 사물·대상·형상 등에 감정을 이입시킨 작가의 의도를 문학적·회화적·심미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문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서는 그림의 예술적 요소, 예술적 표현 양식, 예술적 매개체 등과 같은 그림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문식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서들의 그림책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사서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던적 형식의 문학적 코드가 있는 문학작품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문학적 장치에 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문학적 장치를 설치한 작가의 의도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학적 반응과 상상력을 풍부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텍스트와의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문학으로 재창조되기도 하는 상호텍스트성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구성 등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작품에 관한 평가 등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도서의 판형 등과 같은 그림책의 물리적 형태 등을 책의 내용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책에서는 글자가 언어적 기능

뿐 아니라 시각 이미지적 기능의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서는 독서 자료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서평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의 내용적 측면은 물론 형태적 측면 그리고 그림책의 경우 회화적 부분에 관하여서도 소개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 그림책을 소개하고 평가해야 하는 사서들의 시각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편. 2012. 『어린이(5~10세)의 독서 및 도서관이용 현황조사』. 서울: (재) 한국출판연구소.
- [2] 김종성, 김은옥. 2010.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장서구성의 영향요인 변화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그림책 장서평가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계명대학교)』, 15(2): 139-172.
- [3] 김지영. 2008. 그림책의 그림읽기 수업을 통한 시각 문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 『독서교육연구』, 2(2008): 65-83.
- [4] 노명완, 이차숙. 2002. 『문식성 연구』. 서울: 박이정.
- [5] 민경록. 2008.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패러디 그림책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008년 5월 30일,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89-110.
- [6] 민경록. 2015. 『어린이그림책의 서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7] 민경록. 2017. 『어린이그림책 서평의 이해: 어린이그림책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8] 박소라, 김정선. 2011. 시각적 문해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전략.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0: 27-53.
- [9]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s.v. “형태심리학”. [online] [cited 2017. 3. 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737&cid=42126&categoryId=42126>

- [10] 송경진, 차미경. 2014.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15-240.
- [11] 신혜선. 2002. 『아동문학상 수상 유아그림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학과.
- [12] 유지연 글 · 그림. 2014. 『엄마의 초상화』. 서울: 이야기꽃.
- [13] 이유나. 2015. 교사의 발문을 통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방안 탐색: Arnheim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3-51.
- [14] 이차숙. 2013. Arenheim의 시각적 사고 이론에 기초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 전략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9(2013): 1-21.
- [15] 주지창, 김광식. 2012. 최근 중국에서의 일본 아동문학에 대해서. 『아동문학평론』, 37(3): 49-53.
- [16] 진선미. 2011. 『형태지각 원리에 기초한 시각 연상 지도와 어린이의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재인용. 이유나. 2015. 교사의 발문을 통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방안 탐색: Arnheim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3-51.
- [17] 한유경. 2013. 『아른하임의 시지각이론으로 본 아동미술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재인용. 이유나. 2015. 교사의 발문을 통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방안 탐색: Arnheim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3-51.
- [18] 현은자 외. 2007. 『그림책과 예술교육』. 서울: 학지사.
- [19] 현은자 외. 2004.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 마루별.
- [20] 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 1권. 파주: 사계절.
- [21] Browne, A. 1998. *Voices in the Park*. London: Picture Corgi.
- [22] Browne, A. 1990. *Changes*. 허은미 옮김. 2003. 『달라질 거야』. 서울: 아이세움.
- [23] Arnheim, R. 1969. *Art and Visual Perception*. 김춘일 옮김. 1996. 『美術과 視知覺』. 서울: 미진사.
- [24] Arnheim, R. 1997. *Visual Thinking*. 2nd ed. 김정오 옮김. 2004. 『시각적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5] Birmingham, J. 1977. *Come Away from the Water*, Shirley. 이상희 옮김. 2003.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서울: 비룡소.
- [26] Cali, D. and Bloch, S. 2013. *Grand Livre da la Bagarre*. 정혜경 옮김. 2014.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파주: 문학동네.
- [27] Huber, A. and Olten, M. 2006. *Der 99-Zentimeter-Peter*. 조국현 옮김. 2008. 『99센티미터 한스』. 파주: 토마토하우스.
- [28] Isaccs, K. T. 2013. *Picturing the World: Informational Picture Books for Children*. 윤정옥 역. 2014. 『세상그리기: 어린이를 위한 정보그림책』.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9] Nikolajeva, M. 2005. *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An Introduction*. 조희숙 외역. 2009.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파주: 교문사.
- [30] Nikolajeva, M. and Scott, C. 2001. *How Picturebooks Work*. 서정숙 외역. 2011. 『그림책을 보는 눈: 그림책의 분석과 비평』. 서울: 마루별.
- [31] Nodelman, P. 1988.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김상옥 옮김. 2011. 『그림책론: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 방법』. 파주: 보림.
- [32] Ruth, H. and Climo, S. 1993. *The Korean Cinderella*. New York: HarperCollinsPublisher.
- [33] Salisbury, M. and Styles, M. 2012. *Children's Picturebooks*. 서남희 옮김. 2012. 『그림책의 모든 것』. 서울: 시공사.
- [34] Shulevitz, U. 1997. *Writing with Pictures: How to Write and Illustrate Children's Books*. 재인용. 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 파주: 사계절.
- [35] The Publishers Association. 2015. *PA Statistics Yearbook 2014*. London: The Publishers Association. 재인용. 미래출판전략연구소 편. 2015. 『독자의 도서발견 채널과 국내외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36] Kress, G. and van Leeuwen, T. 199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재인용. Salisbury, M. and Styles, M. 2012. *Children's Picturebooks: The Art of Visual Storytelling*.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 [37] Wiesner, D. 2001. *Three Pigs*. 이옥용 옮김. 2002. 『아기돼지 세 마리』. 서울: 마루별.
- [38] Otsuka, Yuzo and Akaba, Suekichi. 1967. *Suhō and the White Horse*. 이영준 역. 2001. 『수호의 하얀말』. 서울: 한림출판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2. *A Survey of the States of Children's (5~10) Reading and Library Use*. Seoul: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 [2] Kim, Jong Sung and Kim, Eun Ok. 2010.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of Children's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Public Library focused on Picture Books of the Public Library in Daegu." *The Journal of Humanities, Keimyung University*, 15(2): 139-172.
- [3] Kim, Ji Young. 2008. "A Study of Improving Children's Visual Literacy through Reading the Pictures in a Picture Book." *Korean Journal of Reading Education*, 2(2008): 65-83.
- [4] Noh, Myeong Wan and Lee, Cha Suk. 2002. *A Researching on the Literacy*. Seoul: Pagijong.
- [5] Min, Kyeong Rok. 2008. An Analysis of Parody Picture Books based on Postmodernis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ference*, May 30, 2008,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89-110.
- [6] Min, Kyeong Rok. 2015. *A Study on the Reviews for the Children's Picture Books*. Ph.D. diss.,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 [7] Min, Kyeong Rok. 2017. *The Comprehension of the Review of Children's Picture Book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8] Park, So Ra and Kim, Jung Sun. 2011. "A Study on the Strategy for Improving Visual Literacy through Reading Pictures in a Picture Nooks." *Journal of Art Education*, 30: 27-53.
  - [9]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Dictionary of Education*. Seroul: Hawoodongsul, s.v. "Gestalt theory". [online] [cited 2017. 3. 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737&cid=42126&categoryId=42126>
  - [10] Song, Kyeong Jin and Cha, Mi Kyeong. 2014. "A Study on the Concept of Literac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and Public Library Sci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15-240.
  - [11] Sin, Hye Sun. 2002. *A Study of Prize-winning on Picture Books for Infants*. M.A. thesis,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12] Yu, Ji Yeon. 2014. *The Portrait of Mom*. Seoul: Iyakikot.
  - [13] Lee, Yu Na. 2015. "A Study on Teaching Plans for the Reading of Picturebook Pictures Using the Teacher's Questions: With a Focus in Arnheim's Visu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4(3): 23-51.
  - [14] Lee, Cha Suk. 2013. "A Study on the Teaching of Picture Reading in Picturebook based on the Theory of Visual Thinking by R. Arnheim."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9(2013): 1-21.
  - [15] Zhu, Zi-qiang and Kim, Kwang-sik. 2012. "A Study of a Recent Japanese Juvenile Literature in China." *Criticism of Korea Children's Literature*, 37(3): 49-53.
  - [16] Jeon, Seon-Mi. 2011. *A Study on the Visual-association Guidance and Children's Representations based on the Gestalt Principle of the Form Perception: The Practical Model focused on Arnheim's Visual Perception Theory*. Ph.D. diss., Department of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Korea. Quoted in Lee, Yuna. 2015. "A Study on Teaching Plans for the Reading of Picturebook Pictures using the Teacher's Questions - With a Focus on Arnheim's Visu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4(3): 23-51.
  - [17] Han, You-kyung. 2013. *Study on the Artistic Expression of Children based on Visual*

- Perception Theory by Arnheim: Focusing on the Drawings of Children Aged 5 through 8.* M.A. theis,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Korea. Quoted in Lee, Yuna. 2015. "A Study on Teaching Plans for the Reading of Picturebook Pictures using the Teacher's Questions - With a Focus on Arnheim's Visu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4(3): 23-51.
- [18] Hyun, Eun Ja et al. 2007. *Picturebook and Art Education*. Seoul: Hakjisa.
  - [19] Hyun, Eun Ja et al. 2004. *The Picture Reading in Picturebooks*. Seoul: Marubol.
  - [20] Hyun, Eun Ja and Kim, Sae Hee. 2005. *Looking at Picturebooks*, I. Paju: sakyejul.
  - [22] Browne, A. 1990. *Changes*. Translated by Hur, Eun-Mi. 2003. Seoul: Iseum.
  - [23] Arnheim, R. 1969. *Art and Visual Perception*. Translated by Kim, Choon-II. 1996. Seoul: Mijinsa.
  - [24] Arnheim, R. 1997. *Visual Thinking*. 2nd ed. Translated by Kim, Jungoh. 2004.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25] Burningham, J. 1977. *Come Away from the Water, Shirley*. Translated by Lee, Sang-Hee. 2003. Seoul: Biryongso.
  - [26] Cali, D. and Bloch, S. 2013. *Grand Livre da la Bagarre*. Translated by Jeong, Hye Gyeong. 2014. Paju: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 [27] Huber, A. and Olten, M. 2006. *Der 99-Zentimeter-Peter*. Translated by Cho, Kuk-Hyun. 2008. Paju: Tomatohouse.
  - [28] Isaccs, K. T. 2013. *Picturing the World: Informational Picture Books for Children*. Translated by Yoon, Cheong-Ok. 2014.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29] Nikolajeva, M. 2005. *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An Introduction*. Translated by Cho, Heesuk et al. 2009. Paju: Kyomoonsa.
  - [30] Nikolajeva, M. and Scott, C. 2001. *How Picturebooks Work*. Translated by Seo, Jeongsuk et al. 2011. Seoul: Marubol.
  - [31] Nodelman, P. 1988.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Translated by Kim, Sang-Wook. 2011. Paju: Bolim.
  - [33] Salisbury M. and Styles, M. 2012. *Children's Picturebooks*. Tranlated by Seo, Namhee. 2012. Seoul: Sigongsa.
  - [34] Shulevitz, U. 1997. *Writing with Pictures: How to Write and Illustrate Children's Books*. Quoted in Hyun, Eun Ja and Kim, Sae Hee. 2005. *Looking at Picturebooks*. Paju: Sakyejul.
  - [35] The Publishers Association. 2015. *PA Statistics Yearbook 2014*. London: The Publishers Association. Quoted in Future Publishing Strategy Lab. 2015. *A Tendency of the Channel*

- of Finding Books for Reader and the International-and-Domestic Discoverability Reinforcement of Publisher.*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37] Wiesner, D. 2001. *Three Pigs.* Translated by Lee, Ok Yong. 2002. Seoul: Marubol.
- [38] Otsuka, Yuzo and Akaba, Suekichi. 1967. *Suhō and the White Horse.* Translated by Lee, Yeong-Joon. 2001. Seoul: Hollym Corp, Publisher.